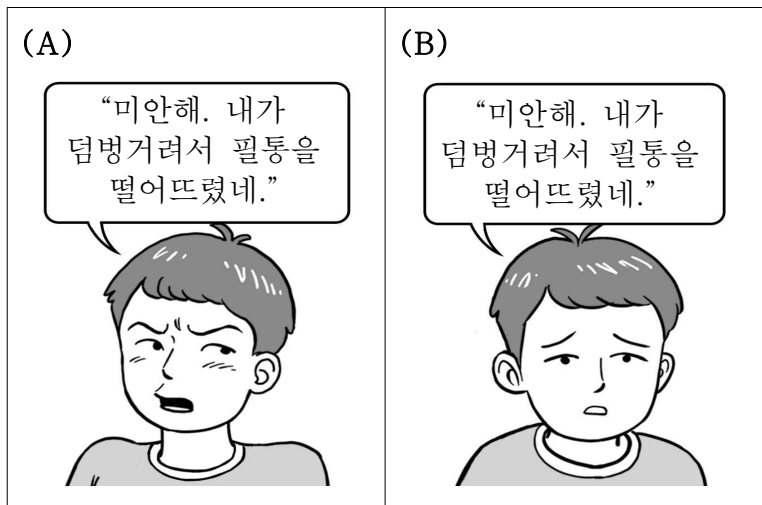


[1 ~ 3] 다음은 화법에 대한 강연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여러분, 혹시 “말 한마디에 천 냥 빚도 갚는다.”라는 속담을 알고 계십니까? 말을 잘하면 어려운 일도 해결할 수 있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정말 말만 잘하면 될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먼저 이와 관련한 실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 20명에게 남학생이 책상 사이를 지나다가 여학생의 필통을 떨어뜨리는 영상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 다음, 남학생이 여학생에게 사과하는 화면을 두 가지로 나누어 제시해 주었습니다. (A)는 말의 내용과 표정이 어울리지 않는 화면이고, (B)는 말의 내용과 표정이 어울리는 화면입니다.



그런 다음 아이들에게 필통을 떨어뜨린 남학생의 사과로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자,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청중의 대답을 듣고) 맞습니다. 아이들 20명 모두 (B)를 골랐습니다. 그렇다면 (A)와 (B)에서 같은 말을 했는데도 아이들이 모두 (B)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이들이 사과하는 말의 내용과 함께 남학생의 표정도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이 실험은 의사소통 상황에서 표정이 말의 내용을 전달하는데 영향을 주는 요소라는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잘 활용하면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표정 이외에도 의사소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1. 위 강연자의 말하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관용 표현을 활용하여 강연에 대한 청중의 주의를 환기하고 있다.
- ② 시각 자료를 청중에게 제시해 주어 강연 내용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③ 청중에게 질문을 던지며 청중이 강연에 집중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 ④ 청중과 공통의 관심사를 갖고 있음을 강조하며 강연을 전개하고 있다.
- ⑤ 다음 시간에 다룰 내용을 언급하며 강연을 마무리하고 있다.

2. 다음은 강연을 들으며 어떤 학생이 한 생각이다. 이 학생이 활용한 듣기 전략을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 전에 이 강연과 관련된 내용을 다룬 책을 읽은 적이 있어. 그때 읽었던 내용을 떠올리며 들으니 이해하기가 쉽군.
- 강연에 소개된 실험의 출처를 밝히지 않아 신뢰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네. 출처를 소개해 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 보 기 >

- ㄱ. 강연과 관련된 배경지식을 활용하며 듣는다.
- ㄴ. 강연에 생략되어 있는 내용을 추측하며 듣는다.
- ㄷ. 강연자의 강연 태도가 적절한지 판단하며 듣는다.
- ㄹ. 강연자가 소개한 자료의 신뢰성을 평가하며 듣는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3. 위 강연의 핵심 내용을 바르게 이해한 것은?

- ① 말하는 이의 표정은 말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도움을 주는군.
- ② 듣는 이의 입장을 고려하여 항상 밝고 즐거운 표정으로 말을 해야 하는군.
- ③ 듣는 이에겐 말하는 이의 표정보다 말의 내용이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군.
- ④ 말하는 이의 표정과 말의 내용이 어울리지 않으면 말의 내용이 더 강조되는군.
- ⑤ 듣는 이의 상황에 따라 표정을 통해 전달되는 내용이 다른 의미로 해석되는군.

[4 ~ 5] 다음은 대화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재희와 새롬이 영화관에 뛰어 들어온다.)

재희: 휴, 다행이다. 하마터면 늦을 뻔했네. 그런데 방금 에스컬레이터에서 나란히 서 있던 학생들, 다른 사람 생각을 너무 안 하는 거 아니니?

새롬: ㉠ (고개를 가우뚱하며) 그게 무슨 소리야?

재희: 난 에스컬레이터를 탈 때 다른 사람을 위해 한 줄로 서야 한다고 생각해. ㉡ 넌 어떻게 생각해?

새롬: 난 두 줄로 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 ㉢ 얼마 전 신문에서 봤는데, 에스컬레이터에서 한 줄 서기를 하면 두 줄로 설 때보다 보행자 안전사고가 훨씬 많이 발생한다.

재희: 하지만 에스컬레이터에서는 한 줄로……

새롬: ㉣ (말을 끊으며) 에스컬레이터에서 걷는 것 자체가 사실 위험한 거야. (영화관의 안내 방송 소리가 나온다.) 누가 걷다가 발을 헛디뎌서 넘어지기도 해 봐. 여러 명이 다칠 수 있잖아.

재희: \_\_\_\_\_ ㉤ \_\_\_\_\_ 다시 말해 줄래?

새롬: 에스컬레이터에서 걷다가 발을 헛디뎌면 여러 명이 다칠 수도 있다고.

재희: ㉥ 하지만 바쁜 일이 있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새롬: 그래, 네 말도 맞아. 때로는 바쁜 일이 있는 사람들을 배려할 필요도 있지. 하지만 난 사람들의 안전이 무엇보다 우선이라 생각해.

4.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비언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의사를 표현하고 있다.
  - ② ㉡: 상대방의 의견을 물으며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
  - ③ ㉢: 매체에서 얻은 정보를 활용하여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 ④ ㉣: 화제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하여 대화의 맥이 끊어지고 있다.
  - ⑤ ㉤: 질문의 형식을 통해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고 있다.

5.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적용할 때,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상대방과 원활하게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는 주변 상황이나 상대방에게 책임을 미루기보다는 자신의 책임임을 나타내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 ① 너 나한테 지금 뭐라고 하지 않았니?
- ② 네 목소리 크기가 너무 작은 거 아니니?
- ③ 안내 방송 때문에 네 말이 잘 안 들렸어.
- ④ 에스컬레이터에서 여러 명이 어떻게 되었다고?
- ⑤ 잠깐 다른 생각을 하느라 네 말을 잘 못 들었어.

[6 ~ 7] 다음은 진로 체험 활동 보고서를 쓰기 위한 활동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작문 상황]

진로 탐색을 위해 장소를 선정하고 현장을 방문한 후 체험 활동 보고서를 내야 함.

[내용 구성 방안]

- 체험 활동을 위해 사전에 했던 활동을 밝힌다. …………… ㉠
- 체험 장소를 선정한 이유를 밝힌다. …………… ㉡
- 체험 활동과 관련된 통계 자료를 활용한다. …………… ㉢
- 체험 장소에서 만난 전문가의 말을 인용한다. …………… ㉣
- 체험 활동을 통해 느낀 점을 포함한다. …………… ㉤

[학생이 쓴 글]

체험 활동을 하기 위해 『직업 길라잡이』라는 책을 살펴보았더니 ‘숲 해설가’라는 직업이 눈에 띄었다. 그래서 이에 대해 좀 더 알아보려고 인터넷에서 숲 해설가에 대한 자료를 ㉠ 건사한 후, ○○국립수목원으로 진로 체험을 다녀왔다. 그곳으로 간 이유는 ○○국립수목원에서 여러 명의 숲 해설가들이 ㉡ 활동하고 있다. 안내를 담당하는 숲 해설가는 숲에 ㉢ 얽혀진 이야기, 동식물의 생태와 그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친절하고 재미있게 해 주었다. 숲 해설가는 “숲 해설가가 되려면 숲과 동식물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을 지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그래서 숲 해설가의 자격을 갖추려면 숲 해설가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알려 주었다. ㉤ 숲을 체험할 때, 방문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가 많아 눈살을 찌푸려야 했다. 숲 해설가는 참 매력적인 직업이라고 생각했다. 처음 해 본 숲길 탐방이었지만 진로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 앞으로 다양한 숲 체험 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숲이나 동식물과 관련된 책들을 폭넓게 읽어야겠다.

6. ‘내용 구성 방안’ 중 학생이 쓴 글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① ㉠      ② ㉡      ③ ㉢      ④ ㉣      ⑤ ㉤

7. ㉠ ~ ㉤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단어의 의미를 고려하여 ‘검색’으로 바꿔야겠군.
- ② ㉡: 호응 관계를 고려하여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다.’로 고쳐야겠군.
- ③ ㉢: 이중 피동 표현이므로 ‘얽힌’으로 고쳐야겠군.
- ④ ㉣: 문장의 연결 관계를 고려하여 ‘그러나’로 바꿔야겠군.
- ⑤ ㉤: 문단의 통일성을 깨뜨리는 내용이므로 삭제해야겠군.

[8 ~ 10] 다음은 학생이 학교 누리집에 올리기 위해 작성한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 ☐ ☐
X

존경하는 교장 선생님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1학년 김민수입니다.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교장 선생님께 학교 신문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입학 후 우리 학교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학교에는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동아리들이 있는지 몰라서 매우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신문을 보면 좋겠다는 생각에 선생님께 여쭙어 보았더니 우리 학교에는 학교 신문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학생들은 학교 신문을 보고 학교 행사 일정이나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 신문을 읽고 다른 학생들의 생각을 알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서로 소통하며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 학교 신문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 각 분야에 진출한 선배들을 취재하여 기사로 쓴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를 본 친구들에게 자신의 꿈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

우리 학급의 많은 친구들도 학교 신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는 학교 신문이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학교 신문은 [            A            ]

8. 학생이 활용한 글쓰기 전략으로 볼 수 없는 것은?

- ① 예상 독자를 고려하여 예의를 갖추어 글을 시작한다.
- ② 건의 내용을 시간의 순차적 흐름에 따라 조직한다.
- ③ 건의를 하게 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다.
- ④ 건의 내용에 대한 기대 효과를 제시한다.
- ⑤ 자신의 경험을 언급하며 글을 전개한다.

9. 윗글을 수정·보완하는 과정에서 <보기>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가) 설문 조사(우리 학급 친구 대상)

1. '학교 신문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

필요하다: 86%  
필요하지 않다: 14%

2. '학교 신문이 필요한 이유'에 대한 응답

학교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를 알기 위해	41%
학교와 가정, 지역 사회와의 협력 관계를 이끌어 내기 위해	30%
학생들의 다양한 주장이나 의견을 알기 위해	27%
기타	2%

(나) ○○ 신문 기사

학교 신문에 있는 정보를 통해 학생들은 학교 행사 일정이나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알 수 있다. 그러면 학생들은 학교 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다) 전문가 인터뷰

“학교 신문은 학생들이 자신의 주장이나 의견을 발표하는 장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 신문을 읽으면 친구들의 다양한 생각을 알게 되면서 서로 소통하며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 ① (가) - 1을 활용하여, 학교 신문의 필요성에 많은 학생들이 공감하고 있다는 근거로 제시한다.
- ② (가) - 2를 활용하여, 학교, 가정, 지역 사회 등의 협력 관계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학교 신문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추가한다.
- ③ (나)를 활용하여, 학교 신문을 통해 학생과 교사 간의 관계를 긴밀하게 하여 학교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내용의 근거로 제시한다.
- ④ (가) - 2와 (나)를 활용하여, 학생들이 학교 신문에서 학교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얻게 되면 학교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한다.
- ⑤ (가) - 2와 (다)를 활용하여, 학교 신문을 읽고 다른 학생들의 주장이나 의견을 알게 되면 학교생활을 즐겁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근거로 제시한다.

10. <조건>을 고려하여 [A]에 들어갈 내용을 작성한다고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 조 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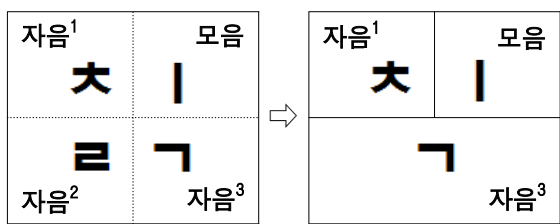
○ 건의 내용을 강조할 것.  
○ 비유적 표현을 활용할 것.

- ① 우리 학교를 대표할 매체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학교에서 학교 신문이 발간된다는 기쁜 소식을 빨리 전해 주십시오.
- ② 학생들이 재미있게 읽을 수 있고 학교생활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에게 사랑받는 학교 신문을 반드시 만들어 주십시오.
- ③ 우리들의 학교생활에 활력소가 되어 줄 비타민이기 때문입니다. 학교생활을 건강하게 만들어 줄 학교 신문이 꼭 발간되도록 해 주십시오.
- ④ 우리의 모든 활동이 담겨 있는 자화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활동이 빠짐없이 기록될 수 있도록 학교 신문 편집 인원을 더 늘려 주십시오.
- ⑤ 우리들의 자유 발언대이기 때문입니다. 학생 기자가 아닌 다른 학생들도 학교 신문에 자신의 의견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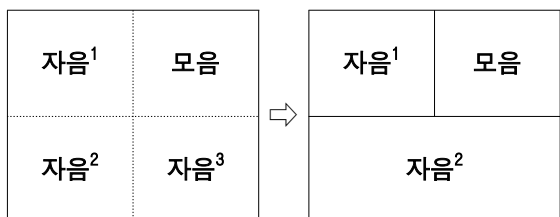
11. <보기>의 설명에 따를 때, ㉠에 들어갈 수 있는 단어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자음 두 개가 음절 끝에 놓일 때, 둘 중에서 하나의 자음이 탈락하는 현상을 ‘자음군 단순화’라고 한다. 다음 그림은 ‘침’([침]→[칙])과 같이 끝소리에 위치한 두 자음 중 앞에 있는 자음(자음<sup>2</sup>)이 탈락하여 뒤에 있는 자음(자음<sup>3</sup>)만 발음되는 현상을 시각화한 것이다.



반면, 다음 그림은 ㉠과 같이 끝소리에 위치한 두 자음 중 뒤에 있는 자음(자음<sup>3</sup>)이 탈락하여 앞에 있는 자음(자음<sup>2</sup>)만 발음되는 현상을 시각화한 것이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ㄱ, ㅅ
- ④ ㄴ, ㅅ
- ⑤ ㄷ, ㅅ

12. <보기>를 참고할 때, ‘본받다’와 같은 유형에 해당하는 단어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본받다’는 ‘본’과 ‘받다’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말로, 다음과 같이 목적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본(을)	+	받다
목적어		서술어

- ① 동생이 형에게 혼나다.
- ② 조명이 환하게 빛나다.
- ③ 오래 걸었더니 힘들다.
- ④ 말보다 행동이 앞서다.
- ⑤ 사자의 출현에 겁먹다.

13. <보기>의 ㄱ~ㄷ을 통해 부정 표현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ㄱ. 나팔꽃이 안 예쁘다.  
ㄴ. 그는 다리를 다쳐 축구를 못 한다.  
ㄷ. 고래는 어류가 아니다.

- ① ㄱ에서 ‘안’을 ‘못’으로 바꾸면 어색한 문장이 된다.
- ② ㄱ에서 ‘안’은 ‘예쁘다’라는 상태를 부정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 ③ ㄴ에서 ‘못’은 축구를 하고자 하는 ‘그’의 의지를 부정하고 있다.
- ④ ㄴ에서 ‘못 한다’는 ‘하지 못한다’로 바꾸어도 어법상 문제가 없다.
- ⑤ ㄷ에서 ‘아니다’는 ‘고래’가 ‘어류’라는 것을 부정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14.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한 것은?

— < 보 기 > —

“나는 멋진 오빠의 친구를 보았다.”는 수식하는 말의 수식 범위가 불분명하여 두 가지 이상의 의미로 해석되는 문장이다. 즉, ‘오빠’가 멋진 것인지, ‘오빠의 친구’가 멋진 것인지 분명하지 않아 중의적으로 해석된다.

- ① 귀여운 동생의 강아지가 있다.
- ② 형은 나보다 등산을 좋아한다.
- ③ 할머니께서 신발을 신고 계신다.
- ④ 나와 그녀는 올해 결혼을 하였다.
- ⑤ 그는 나에게 사과와 꿀 두 개를 주었다.

15. <보기>에 제시된 국어사전 정보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맞다** [말파] 「동사」

(1) 【...에게 ...을】 외부로부터 어떤 힘이 가해져 몸에 해를 입다. 『훈장에게 좋아리를 맞다.』

(2) 【...에 ...을】 침, 주사 따위로 치료를 받다. 『팔에 예방 주사를 맞다.』

**말다** [말파] 「동사」 【...을】

(1) 코로 냄새를 느끼다. 『흄냄새를 말다.』

(2) 어떤 일의 김새를 눈치채다. 『그의 말투와 행동에서 그가 범인이라는 냄새를 말았다.』

- ① ‘맞다’와 ‘말다’는 표기 형태는 다르지만 발음은 동일하군.
- ② ‘맞다’와 ‘말다’는 모두 동작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품사로 분류되는군.
- ③ ‘맞다’와 ‘말다’는 모두 두 가지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다의어이군.
- ④ ‘맞다’는 ‘말다’와 다르게 문장을 구성할 때 부사어를 필요로 하는군.
- ⑤ ‘말다’는 ‘맞다’와 다르게 피동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단어이군.

[16 ~ 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도덕적 판단이란 어떤 행위나 의도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좋은 것 혹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도덕적 판단의 기준은 사람이 성장하면서 달라질 수 있다. 도덕성 발달 단계를 연구한 콜버그는 사람들에게 ‘하인즈 딜레마’를 들려주고 하인즈의 행동의 옳고 그름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의 대답에서 단순하게 ‘예’ 혹은 ‘아니오’라는 응답에 관심을 둔 것이 아니라 그 판단 근거를 기준으로 도덕성 발달 단계를 ‘전 관습적 수준’, ‘관습적 수준’, ‘후 관습적 수준’의 세 수준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이를 다시 세분화하여 총 여섯 단계로 구성했다.

콜버그가 구성한 가장 낮은 도덕성 발달 단계는 ① 전 관습적 수준이다. 이 수준은 판단의 기준이 오로지 행위자에게 미치는 직접적인 결과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 수준은 다시 두 단계로 구성된다. 가장 낮은 도덕성인 1단계에서 판단의 기준은 처벌이다. 벌을 받으면 나쁜 것이고 칭찬을 받으면 좋은 것으로 인식한다. 2단계에 도달하면 자신의 이익이 판단의 기준이 된다. 즉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는 것을 옳다고 간주한다.

전 관습적 수준을 넘어서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속하는 ② 관습적 수준에 다다르게 된다. 이 수준에서는 행위자에게 미치는 결과를 고려하는 것에서 벗어나 사회 집단이나 국가의 기대를 따르게 된다. 관습적 수준의 첫 단계인 3단계에서는 자신이 속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동의하는 것을 좋은 것으로 인식한다. 즉 사회에 속한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도덕적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4단계에 이르면 모든 잘잘못은 법에 의해 판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어떤 예외도 허용하지 않는다. 질서 유지를 위한 법의 준수가 도덕적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관습적 수준을 넘어서면 ③ 후 관습적 수준에 도달하게 된다. 이 수준은 자신의 가치관과 도덕적 원칙이 자신이 속한 집단과 별개임을 깨닫고 집단을 넘어 개인의 양심에 근거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후 관습적 수준의 첫 번째 단계인 5단계에 이르면 법의 합리성이 도덕적 판단의 기준이 된다. 법이 합리적이지 못할 경우, 법적으로는 잘못이지만 도덕적으로는 옳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6단계에 이르면 도덕적 판단은 스스로 선택한 양심의 결정을 따르는 것이라고 인식한다. 따라서 법이나 관습과 같은 제약을 넘어 인간 존엄, 생명 존중과 같은 본질적 가치가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콜버그 이론의 특징으로는 우선 인간의 도덕성 발달이 단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사람은 각 단계를 순서대로 거쳐 간다는 것이다. 그리고 도덕성 발달은 자기 수준보다 높은 도덕적 난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콜버그의 이론은 도덕성 발달을 이끌어 줄 수 있는 유용한 ④ 도덕 교육의 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 6

16.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특정한 이론을 소개한 후 그 의의를 밝히고 있다.
- ② 권위자의 이론을 설명한 후 그 장단점을 분석하고 있다.
- ③ 다양한 이론을 제시한 후 각각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 ④ 상반된 두 이론의 차이점을 설명한 후 이를 절충하고 있다.
- ⑤ 어떤 이론에 대한 통념을 제시한 후 그 문제점을 설명하고 있다.

17. <보기>는 윗글에 소개된 ‘하인즈 딜레마’에 대한 ‘콜버그의 연구 과정’을 정리한 것이다. <보기>의 [A], [B]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묶은 것은? [3점]

— < 보 기 > —

**< 하인즈 딜레마 >**  
 하인즈의 부인이 암으로 죽어가고 있었다. 부인을 살릴 수 있는 약은 같은 마을에 사는 어떤 약사가 만든 약뿐이었다. 그런데 그 약사가 원가의 10배나 되는 가격을 책정했기 때문에 하인즈는 그 약을 구입할 수가 없었다. 하인즈는 약사에게 약을 싸게 팔거나 외상으로라도 달라고 간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절망을 느낀 하인즈는 그날 밤 약방을 부수고 들어가 부인을 위해 약을 훔쳤다.

**< 콜버그의 연구 과정 >**

질문	하인즈의 행동은 옳은 것인가? 왜 그렇게 판단했는가?	
판단	판단 기준	단계
예	[A]	2
아니오	마을 사람들의 비난을 받기 때문에	3
아니오	[B]	4
예	생명이 소중하다는 양심에 따른 행동이기 때문에	6

	[A]	[B]
①	자신의 욕망을 충족했기 때문에	법이 합리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②	자신이 필요로 하는 약을 얻었기 때문에	법을 어기고 도둑질을 했기 때문에
③	아내에게 칭찬을 받기 때문에	사회적 정의를 저버렸기 때문에
④	마을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때문에	약사가 약값을 부당하게 책정했기 때문에
⑤	법을 어겼지만 도덕적으로서는 옳기 때문에	약사의 법적 권리를 침해했기 때문에

18. ㉠ ~ ㉣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소수의 사람들이, ㉣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거쳐 가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군.
- ② ㉠은 이기적인 욕망을, ㉣은 집단의 가치를 추구하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군.
- ③ ㉠은 집단의 질서를, ㉣은 보편적인 도덕 원칙을 지향하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군.
- ④ ㉣은 개인의 자율성이, ㉣은 집단에 의한 강제성이 중시되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군.
- ⑤ ㉣은 성인들에게서, ㉣은 아동들에게서 많이 보이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군.

19. ㉠의 내용을 바르게 추론한 것은?

- ① 각자의 도덕성 발달 단계 수준보다 낮은 도덕적 원리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는 것이다.
- ② 사람들에게 도덕성 발달 단계의 최고 수준의 도덕 원리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는 것이다.
- ③ 보편적인 도덕성 발달 단계 수준의 도덕적 딜레마를 제공하여 이를 해결하게 하는 것이다.
- ④ 각자의 도덕성 발달 단계 수준보다 낮은 도덕적 딜레마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다.
- ⑤ 각자의 도덕성 발달 단계 수준보다 한 단계 높은 도덕적 문제를 제기하여 이를 스스로 해결하게 하는 것이다.

[20 ~ 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소리는 진동으로 인해 발생한 파동이 전달되는 현상으로, 이때 전달되는 파동을 음파라고 한다. 음파는 일정한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직진성이 있고, 물체에 부딪치면 반사되는 성질을 갖고 있다.

음파는 주파수의 크기에 따라 고주파와 저주파로 나뉜다. 고주파는 직진성이 강하고 작은 물체에도 반사파가 잘 생기며 물에 흡수되는 양이 많아 수중에서의 도달 거리가 짧다. 반면, 저주파는 직진성이 약하고 작은 물체에는 반사파가 잘 생기지 않으며 물에 흡수되는 양이 적어 수중에서의 도달 거리가 길다.

음파는 파동을 전달하는 물질의 밀도가 높을수록 속도가 빨라진다. 그래서 음파의 속도는 공기 중에 비해 물속에서 훨씬 빠르다. 또한 음파의 속도는 물의 온도나 압력에 따라 변화한다. 일반적으로 수온이나 수압이 높아질 경우 속도가 빨라지고, 수온이나 수압이 낮아지면 속도는 느려진다. 300 m 이내의 수심에서 음파는 초당 약 1,500 m의 속도로 나아간다.

한편 음파는 이러한 속성을 바탕으로 어업과 해양 탐사, 지구 환경 조사, 군사적 용도 등으로 폭넓게 사용된다. 음파를 활용하는 대표적인 예로는 물고기의 위치를 탐지하는 어군 탐지기와 지구 온난화와 관련된 실험을 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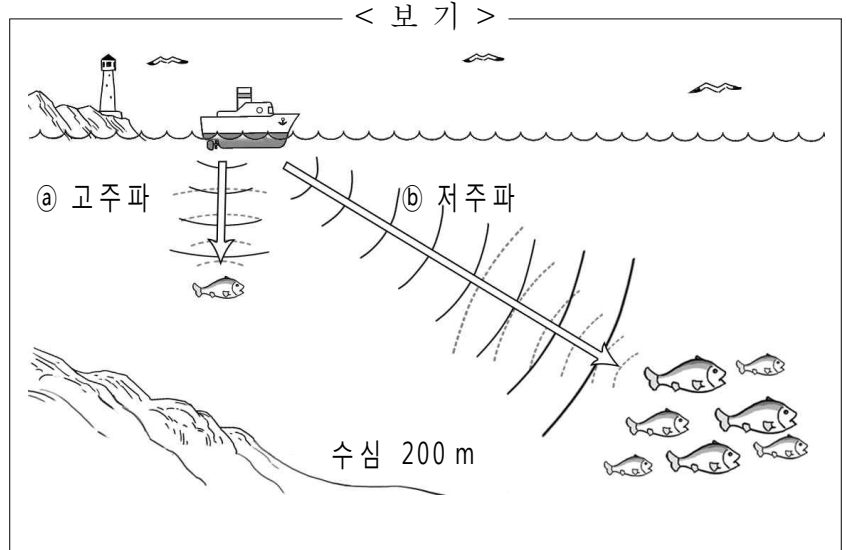
어군 탐지기는 음파가 물체에 부딪쳐 반사되는 원리를 이용한 기기이다. 고깃배에서 발신한 음파가 물고기에 부딪쳐 반사되는 방향과 속도를 분석하여 물고기가 있는 위치를 알아낸다. 예를 들어 어군 탐지기가 특정 방향으로 발신한 음파가 0.1초 만에 반사되어 돌아왔다면, 목표물은 발신 방향으로 75 m ( $1,500 \text{ m/s} \times 0.1 \text{ s} \times 0.5$ ) 거리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있는 물고기를 찾을 때에는 반사파가 잘 생기는 고주파를 사용한다. 이에 반해 먼 거리에 있는 물고기 떼를 찾을 때에는 도달 거리가 긴 저주파를 사용한다.

음파를 활용하면 지구 온난화 연구에 대한 기초 자료를 얻을 수도 있다. ㉠ 미국의 한 연구팀은 미국 서부 해안의 특정 지점에서 발신한 음파가 호주 해안의 특정 지점에 도달하는 시간을 주기적으로 측정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팀은 수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연구팀은 이러한 결과가 ㉡ 지구 온난화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중의 하나라고 주장하였다.

20.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소리는 파동이 전달되는 현상이다.
- ② 물의 밀도는 공기의 밀도보다 높다.
- ③ 수중에서 음파는 물을 매개로 전달된다.
- ④ 음파의 속도는 수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⑤ 멀리 있는 물체일수록 반사파의 양은 많아진다.

21. <보기>의 ㉠과 ㉡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나 ㉡로 물고기를 찾을 수 있는 것은 음파가 반사되어 돌아왔기 때문이군.
- ② ㉠나 ㉡가 0.1초 만에 고깃배로 돌아왔다면 물고기는 75 m 거리에 있겠군.
- ③ ㉠는 ㉡에 비해 작은 물체에도 반사파가 잘 발생하므로 작은 물고기를 찾을 때 유리하겠군.
- ④ ㉠는 직진성이 약하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 있는 물고기를 찾는 데 이용되는군.
- ⑤ ㉡가 먼 곳에 있는 물고기를 찾는 데 이용되는 것은 물에 흡수되는 음파의 양이 적기 때문이군.

22. ㉡을 고려하여 ㉠의 결과를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음파의 양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겠군.
- ② 음파의 속도가 느려지는 추세를 보였겠군.
- ③ 음파의 주파수가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겠군.
- ④ 음파의 도달 거리가 길어지는 추세를 보였겠군.
- ⑤ 음파의 도달 시간이 짧아지는 추세를 보였겠군.

23. 윗글을 읽을 때 사용할 독서 전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핵심 제재의 발전 과정에 주목하며 읽는다.
- ② 핵심 제재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비교하며 읽는다.
- ③ 핵심 제재에 대한 글쓴이의 주장을 비판하며 읽는다.
- ④ 핵심 제재가 지닌 속성을 사실적으로 이해하며 읽는다.
- ⑤ 핵심 제재가 갖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정리하며 읽는다.

[24 ~ 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일반적으로 사진을 찍을 때는 사진에 담을 대상인 중심 피사체를 먼저 선정하여 화면 중앙에 놓고 이것에 초점을 맞춘다. 그런 다음 중심 피사체와 주변 풍경을 적절하게 구획하여 안정된 구도로 사진을 찍는 것이 일반적인 프레임\* 구성 방법이다. 그런데 사진을 촬영하다 보면 의도하지 않았던 요소들이 개입하여 일반적인 프레임 구성 방법에서 벗어났음에도 미적 효과가 느껴지는 경우가 있다. 이를 의도적으로 활용한 대표적인 예가 솔더샷 프레임이다.

솔더샷 프레임이란 등에 업힌 아이가 어깨 너머로 세상을 보는 것처럼, 프레임 안에 장애물을 배치하여 감상자가 장애물 너머로 중심 피사체를 보도록 유도하는 프레임 구성 방법이다. 솔더샷 프레임을 활용하면 프레임 안에 삽입된 장애물로 인해 감상자가 시각적인 긴장감을 느끼게 되어 중심 피사체에 대한 감상자의 집중도가 높아지게 된다.

솔더샷 프레임은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활용하여 구성한다. 첫째, 사진에 담고자 하는 중심 피사체 앞에 장애물을 배치한다. 장애물을 배치하면 감상자가 눈에 잘 띄는 장애물을 먼저 본 다음에 중심 피사체를 보기 때문에 중심 피사체로 시선이 집중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이때 장애물이 중심 피사체보다 크면, 장애물이 감상자의 눈에 더 잘 띄게 된다. 그리고 장애물의 형태나 자세, 시선 등이 중심 피사체를 향하도록 하면 감상자의 시선을 중심 피사체로 이끌어 주는 지시성이 강화된다. 둘째, 중심 피사체에는 초점을 정확하게 맞추는 반면 장애물에는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 그러면 감상자는 초점이 맞지 않아 흐릿하게 보이는 장애물보다 초점을 맞춘 대상을 중심 피사체로 인식하여 시선을 집중하게 된다. 셋째, 중심 피사체와 장애물의 밝기를 대비시킨다. 중심 피사체는 밝게, 장애물은 어둡게 촬영하는 것이 좋다. 그러면 밝음과 어둠이 대비되면서 감상자가 중심 피사체를 주목하게 된다.

솔더샷 프레임은 의도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미적 효과를 의도적으로 활용하여 사진의 예술성을 구현하고자 한다. 솔더샷 프레임은 조화와 균형, 통일을 기본으로 여겼던 기존의 예술적 인식에서 벗어나 순간적이고 우연적인 것, 불안정한 것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했다는 점에서 사진 예술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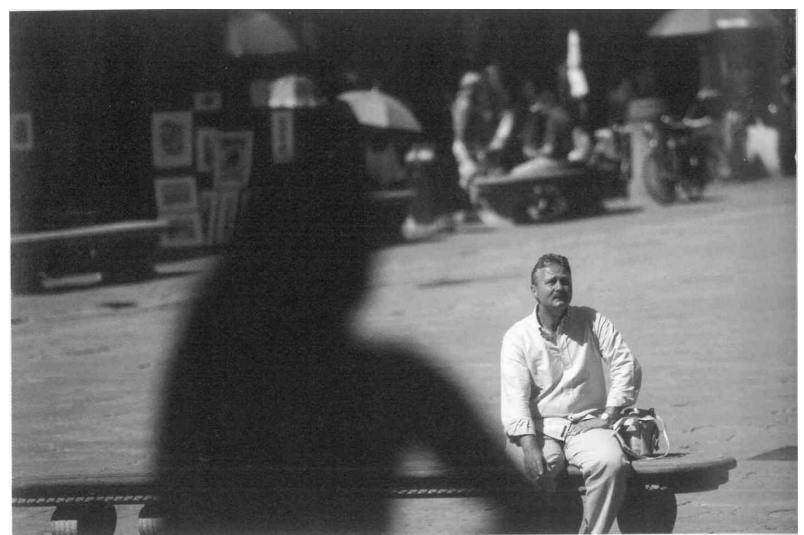
\* 프레임: 사진 화면의 구도를 설정하는 틀.

24.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솔더샷 프레임의 개념
- ② 솔더샷 프레임의 효과
- ③ 솔더샷 프레임의 변천 과정
- ④ 솔더샷 프레임의 촬영 기법
- ⑤ 솔더샷 프레임의 예술적 의의

25.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 진동선, 「이탈리아 피렌체」 >

이 사진은 남자를 향하여 서 있는 여자를 장애물로 배치하여 솔더샷 프레임으로 촬영한 것이다.

- ① 중심 피사체와 장애물의 밝기를 대비시켜 감상자가 중심 피사체를 주목하게 하는군.
- ② 장애물을 흐릿하게 촬영하여 초점을 맞춘 대상을 감상자가 중심 피사체로 인식하게 하는군.
- ③ 장애물의 자세가 중심 피사체를 향하게 함으로써 중심 피사체에 대한 지시성이 강화되고 있군.
- ④ 장애물을 중심 피사체보다 앞에 배치하여 장애물이 중심 피사체보다 감상자의 눈에 먼저 띄게 하는군.
- ⑤ 장애물을 중심 피사체보다 크게 촬영하여 감상자의 시선이 중심 피사체를 거쳐 장애물로 집중되게 하는군.

26. 윗글에 언급된 ‘솔더샷 프레임(㉠)’과 <보기>의 ‘옛지샷 프레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보 기 > —

‘옛지샷 프레임’은 중심 피사체를 가장자리나 구석에 위치시켜 의도적으로 시각적 긴장감을 유발하는 프레임 구성 방법이다. 이 프레임은 안정된 구도를 활용하는 일반적인 사진과 달리 익숙하지 않은 프레임을 통해 감상자가 중심 피사체에 집중하게 한다.

- ① ㉠은 ㉡과 달리 기존의 예술적 인식을 바탕으로 한 프레임 구성 방법이다.
- ② ㉡은 ㉠과 달리 의도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미적 효과를 의도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 ③ ㉠은 조화와 균형, ㉡은 부조화와 불균형을 아름다움의 기본으로 여기고 있다.
- ④ ㉠과 ㉡은 중심 피사체를 프레임의 중앙 부분에 놓이도록 촬영한다.
- ⑤ ㉠과 ㉡은 익숙하지 않은 프레임을 통해 시각적 긴장감을 유발한다.

[27 ~ 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기업은 제품이 어떤 가격에서 어느 정도 판매될 것인지를 예상하여 제품을 생산한다. 그런데 기업이 예상한 만큼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상보다 적은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볼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은 자신들이 제품을 최소한 어느 정도 판매해야 손해를 피할 수 있는지를 분석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손익 분기점이다.

손익 분기점은 기업의 수익과 비용이 일치하는 지점을 말한다. 손익 분기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수익과 비용의 개념을 알아야 한다. 기업의 수익은 제품의 가격과 판매량의 곱이고, 비용은 고정 비용과 변동 비용을 합한 금액이다. 이때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기업의 이익이 된다. 그러므로 손익 분기점은 수익과 비용이 같아지는 지점의 판매량으로 나타낼 수 있고, 이 판매량을 손익 분기점 판매량이라 한다. 손익 분기점 판매량은 아래와 같이 ㉠ 산출한다.

$$\text{손익 분기점 판매량} = \frac{\text{고정 비용}}{\text{가격} - \text{단위당 변동 비용}}$$

여기에서 고정 비용은 생산량이나 판매량에 따라 변하지 않는 비용이다. 생산 설비에 대한 투자 비용, 임대료, 연구 개발비 등이 대표적인 고정 비용이다. 일반적으로 제품 생산에는 일정 수준의 고정 비용이 ㉡ 발생한다. 반면에 변동 비용은 생산량이나 판매량에 따라 변하는 비용이다. 제품 생산을 위한 원자재 비용, 포장비 등이 변동 비용에 속한다. 변동 비용은 제품 생산량이 늘어남에 따라 증가한다. 그리고 고정 비용과 변동 비용을 합한 비용을 생산량으로 나누면 해당 제품의 단위당 비용이 된다. 마찬가지로 고정 비용과 변동 비용을 각각 생산량으로 나누면 해당 제품의 단위당 고정 비용, 단위당 변동 비용이 된다. 이러한 개념들을 바탕으로 손익 분기점 판매량을 산출해 보면, 고정 비용이나 단위당 변동 비용이 늘어날수록 손익 분기점 판매량은 커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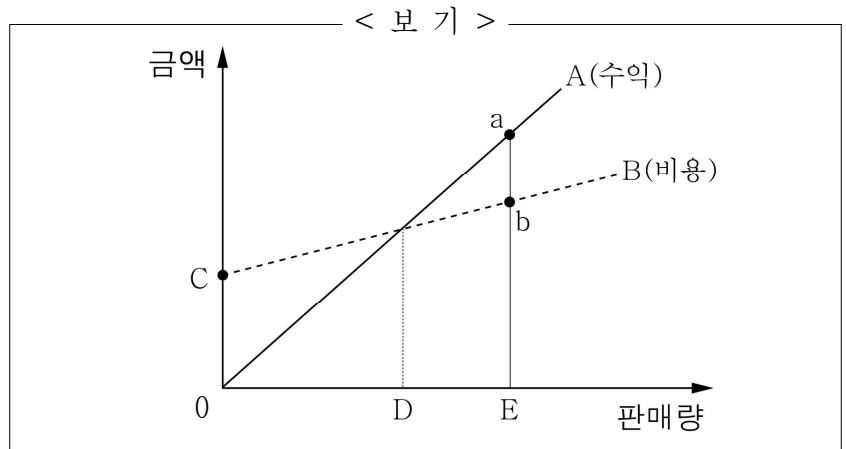
어떤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고정 비용은 20,000원, 단위당 변동 비용은 100원, 제품의 가격은 500원이라고 ㉢ 가정하자. 이 제품의 손익 분기점 판매량은  $\frac{20,000}{500-100} = 50$  단위이다. 즉 기업이 이 제품을 50단위 판매했을 때 수익과 비용이 같다. 그러므로 이 제품을 50단위보다 많이 판매한다면 기업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기업의 손익 분기점 분석이 ㉣ 유효하기 위해서는 비용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비용이 달라진다면 손익 분기점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또한 판매량을 정확하게 예측해야 한다. 예상과 달리 실제 판매량이 손익 분기점 판매량보다 적다면 기업이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기업은 손익 분기점 분석을 통해서 제품의 판매 성과에 대한 평가, ㉤ 적절한 생산 방법의 결정 등 각종 의사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얻을 수 있다.

27. 밑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기업은 판매량을 예상하여 생산량을 결정한다.
- ② 변동 비용은 제품 생산량이 늘어남에 따라 감소한다.
- ③ 손익 분기점 분석을 위해서는 비용 구조를 파악해야 한다.
- ④ 단위당 고정 비용은 고정 비용을 생산량으로 나눈 값이다.
- ⑤ 기업은 제품의 판매 성과를 알기 위해 손익 분기점 분석을 활용할 수 있다.

28.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A~E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A: 가격과 판매량을 곱한 금액이다.
- ② B: 단위당 변동 비용을 합한 금액이다.
- ③ C: 판매량에 관계없이 지출되는 고정 비용이다.
- ④ D: 수익과 비용이 일치하는 손익 분기점 판매량이다.
- ⑤ E: a와 b의 차이만큼 이익이 되는 판매량이다.

29. <보기>의 상황에서 기업이 취할 수 있는 대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보기 > —

어떤 기업이 생산하여 판매하는 제품의 손익 분기점 판매량은 80개이다. 그런데 최근 판매량을 다시 예상했더니 이 제품은 70개만 판매될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가격과 고정 비용을 변화시킬 수 없는 상황에서 손익 분기점 판매량을 낮춰야 하는 형편이다.

- ① 포장비를 줄인다.
- ② 연구 개발비를 증액한다.
- ③ 설비 투자 비용을 늘린다.
- ④ 원자재 구입 가격을 올린다.
- ⑤ 임대료가 비싼 곳에서 생산한다.

30.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꼬집어내거나 숨아 냄.
- ② ㉡: 어떤 일이나 사물이 생겨남.
- ③ ㉢: 어떤 조건이나 전제를 내세움.
- ④ ㉣: 보람이나 효과가 있음.
- ⑤ ㉤: 알맞고 바른 정도.

[31 ~ 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다음날 아침], 신새벽부터 밭에 나갔던 강노인은 그만 입을 짝 벌리고 선 채 말을 잃었다. 세상에 이런 법은 없었다. 이제 손가락만 한 고추 모종이 깔려 있는 밭에 여기저기 연탄재들이 나뒹굴고 있지 않은가. 겨울 빈 밭에 내다 버리는 것이야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목숨이 붙어 자라고 있는 밭에 연탄재를 내던진 것은 명백히 짐승의 처사였다. 반상회 끝의 독기 어린 동네 사람들이 저지른 것임은 대번에 알 수 있었지만 아무리 그렇다 하여도 이런 짓거리까지 해낼 줄이야 짐작도 못했던 강노인이었다. 수십 덩어리의 연탄재 폭격을 당해 짓뭇개진 모종이 한 고랑만 해도 술했다. 세상에 막된 인종들……. 강노인은 주먹코를 씹룩이며 밭으로 달려 들어가서 닥치는 대로 연탄재를 길가에 내던졌다. 서울 것들이나 되니 살아 있는 밭에 해코지할 생각을 갖지. 땅을 아는 자라면 저 시퍼런 하늘이 무서워서라도 감히 이따위 행패를 생각이나 하겠는가. 흰 연탄재 가루를 뒤집어쓰고 쓰러져 있는 죄 없는 풀잎을 차마 바로 볼 수 없어서 강노인은 잔뜩 허둥대고 있었다.

도로 청소원인 김씨가 아침밥을 먹으러 들어오면서 보니 강노인은 검정 고무신이 벗겨진 줄도 모르고 손바닥으로 연탄재를 끌어 모으느라 정신이 없었다. 밤사이 밭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눈여겨보지 않아 알 턱이 없었던 김씨가 인사랍시고 던진 말은 더욱 가관이었다.

“영감님네 땅을 내놓으셨다면서요? 그런데 뭘 그리 열심히 가꾸십니까. 이내 넘길 거라면서…….”

“아니, 누가 그런 소릴 해?”

시뻘건 얼굴을 핵 돌리며 벽력같이 고탈음 지르는 통에 김씨가 움찔 뒤로 물러났다.

“어젯밤 반상회에서 댁의 며느님이 그러셨다는데요? 저도 우리집 여편네한테 들은 소리라서.”

더 들어볼 것도 없이 강노인은 곧장 집으로 뛰어갔다. 벗겨진 신발을 짹짹 꿰어 차고서. 열같이배추와 열무들을 다듬고 있던 마누라가 노인의 허둥대는 기세에 토끼눈을 뜨고 일어섰다.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우리 아버님 근력이 쇠하셔서 올해 일량은 더 이상 일을 못 하시니까 파실 모양이더라고 말했다는군요. 경국이 어미도 동네 사람들 뒹달에 그냥 해본 소리겠지요.”

“그냥?”

“밭에다 그 지경을 해댄 걸 보면 오죽했겠수. 뭐, 틀린 말도 아니고 땅 팔아서 아들 살리고 남는 돈은 은행에 넣어 이자나 받으면 우리 식구 신간이사 편치 뭘 그러슈.”

(중략)

“시끄러!”

마누라 입을 봉해 놓고서 강노인은 이내 밭으로 되돌아왔다. 한 포기라도 살릴 수 있는 만큼은 건져내야 할 고추 모종들 때문에 한시가 급한 강노인이었다. 반상회 파문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 반상회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연립 주택에 산다는 은혜 엄마가 찾아와서 경국이 엄마가 [지난달] 꾸어간 오십만 원을 돌려달라고 하소연을 늘어놓기 시작한 것이다. 땅을 팔았더니 계약금을 받았을 터인즉 큰며느리 빚을 대신 갚아 줄 수 없겠느냐는 여자의 말에 강노인은 주먹코가 더욱 빨

개졌다. [지난겨울] 서울에서 이사 와 동네 물정 모르고 딸이 다니는 에바다 피아노 학원에서 알게 된 경국이 엄마에게 갓 돈을, 그것도 두 번째 탄 것을 빌려줬다는 것이다. 이 동네 지주의 큰며느리라 해서 별 의심도 하지 않고 돈을 주었는데 경국이 엄마가 동네에 뿌린 빚이 한두 군데가 아니어서 직접 시아버지와 담판을 짓겠다고 마음먹은 은혜 엄마였다.

그게 어떤 돈인가 말이다. 서울에서의 셋방살이가 하도 지긋지긋해서 연립 주택 한 채를 마련, 이곳에 이사 온 지 반년도 채 되지 않은 그녀였다. 갓돈 타고, 여름에 보너스 나오면 이자 나가는 빚 백만 원을 갚을 요량이었는데 그 몇 달 사이의 ① 이자 몇 푼을 육십내다가 생돈 떼에게 생겼으니 생각만 해도 속이 터질 지경이었다.

땅을 팔았다는 소문이 번지면서 큰아들 용규에게 빚을 준 동네 사람들이 강노인에게 물려왔다. 은혜 엄마까지 꼭 여덟 명이었다. 그 중에는 목동에서 살다 철거 보상금 받아 쥐고 이곳까지 흘러온 김영진이라는 날품팔이 사내도 끼여 있었다. 철거 보상금을 삼 부 이자로 놓아 주겠다는 고흥댁의 말만 믿고 돈을 건네준 사람이었다. 그들은 한결같이 강노인 땅을 믿고 빌려준 돈이니까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우겨대면서 땅을 판 적이 없다는 그의 말을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았다.

“그 못난 놈이 공장까지 담보로 잡혀 먹었대요. 최신 기계 설비만 갖추면 돈 벌리는 게 눈에 보이는 사업이랑데……. 은행 대출도 기간이 차서 경고장이 날아왔답니다.”

이판사판이라고 마누라도 이제 감추지 않고 잘도 털어놓는다. 용규가 그 모양이니 처가에서까지 돈을 끌어댄 용민이는 어찌겠느냐고 숫제 으름장이었다.

“땅은 안 돼, 안 팔아!”

“고집 좀 그만 부리고 우선 집 앞에 거라도 떼어 팔아 발등의 불이라도 꺼 봅시다. 다 자식 잘되라고 하는 짓인데 왜 그러우?”

“자식 놈들 뒷바라지에 땅 다 날려 보낸 걸 몰라!”

입씨름에 지친 마누라가 눈물바람을 하다가 용문이 방으로 건너가 버린 뒤, 강노인은 그 밤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여야만 했다. 자식 농사는 포기한 지 오래지만 해마다 씨를 뿌리고 수확을 거두는 재미만큼은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그였다. 서울에서 밀려 나온 서울 것들 때문에 여기까지 땅값이 들먹거리는 북새통을 치렀고 그 와중에서 자식들이 모두 저푼수로 커버렸다는 원망도 많은 게 강노인이었다. 씨 뿌린 땅에서 거두어들이는 수확이 아닌 다음에야 어찌 땅 팔아서 그 돈으로 쌀 사고 채소 사며 살 수 있을 것인가. 농사꾼 주제로는 평생 만져 볼 엄두도 못내는 큰돈이 굴러 들어왔어도 쉽게 생긴 내력만큼이나 씹쓸이도 허망하기 짝이 없었다. 그나마 이만큼이라도 마지막 땅 조각을 붙들고 있다는 위안이 강노인에게는 큰 힘이 되었다. 이 고장에 서울 바람이 몰아닥쳐요 모양으로 설익은 도시가 되지 않았더라면 아직껏 넓디넓은 땅을 가지고 있을 것이 틀림없는 스스로를 생각해 보면 더욱 화가 치밀었는데 다 부질없는 노릇이었다.

- 양귀자, 「마지막 땅」 -

31.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① 서술자가 과거를 회상하며 등장인물로 나타나고 있다.

- ② 서술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 ③ 서술자가 작중 인물로 등장하여 사건에 직접 개입하고 있다.
- ④ 서술자가 관찰자 입장에서 사건을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 ⑤ 서술자가 전지적 관점에서 등장인물의 심리를 서술하고 있다.

32. 윗글의 사건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보기>와 같이 재구성하였을 때,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시간]	[사건]	
지난겨울	은혜 엄마가 서울에서 이사 와 경국이 엄마를 알게 됨.	..... ㉠
↓		
지난달	은혜 엄마가 경국이 엄마에게 돈을 빌려줌.	..... ㉡
↓		
어젯밤	경국이 엄마가 반상회에서 동네 사람들에게 땅과 관련된 말을 함.	..... ㉢
↓		
다음날 아침	반상회에서 며느리가 땅과 관련된 말을 한 것을 강노인이 듣게 됨. 동네 사람들이 강노인을 찾아와 아들 용규의 빚을 갚으라고 함.	..... ㉣ ..... ㉤

- ① ㉠은 자식이 연결 고리가 되어 일어난 사건이다.
- ② ㉡는 경국이 엄마가 강노인의 며느리라는 사실이 영향을 미쳤다.
- ③ ㉢는 경국이 엄마가 강노인의 입장을 대변하려 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
- ④ ㉣는 청소원 김씨에 의해 이루어진 사건이다.
- ⑤ ㉤는 강노인의 부인이 아들의 빚 문제를 구체적으로 실토하는 계기가 된다.

33. '땅'에 대한 강노인의 생각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 ① 삶의 위안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다.
- ② 재미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다.
- ③ 마지막까지 지켜 내고자 하는 공간이다.
- ④ 생명을 가꾸고 유지할 수 있는 공간이다.
- ⑤ 자식들과의 행복한 생활을 보장하는 공간이다.

34. ㉠의 상황과 관련이 있는 한자성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금상첨화(錦上添花)                      ② 소탐대실(小貪大失)
- ③ 점입가경(漸入佳境)                      ④ 진퇴양난(進退兩難)
- ⑤ 풍전등화(風前燈火)

[35 ~ 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 한숨아 세한숨아 네 어내 틈으로 들어오느냐  
 고모장지 세살장지 가로단이 여단이 암돌찌귀 수돌찌귀\* 배  
 목걸새\* 뚝뚝 박고 용거복 ㉡ 자물쇠로 수기수기 채웠는데 병  
 풍이라 덜컥 접은 족자라 데굴데굴 마느냐 네 어내 틈으로 들  
 어오느냐  
 어인지 너 온 날 밤이면 잠 못 들어 하노라  
 - 작자 미상 -

\* 암돌찌귀 수돌찌귀: 문짝을 문설주에 달고 여닫기 위한 쇠붙이.  
 \* 배목걸새: 문을 잠그고 빗장으로 쓰는 ‘ㄱ’자 모양의 쇠.

(나)  
 잠아 잠아 짙은 잠아 이 내 눈에 쌓인 잠아  
 염치불구 이 내 잠아 검치두덕\* 이 내 잠아  
 어제 간밤 오던 잠이 오늘 아침 다시 오네  
 잠아 잠아 무삼 잠고 가라가라 멀리 가라  
 세상 사람 무수한데 구태 너는 간 데 없어  
 원치 않는 이 내 눈에 이렇듯이 자심하노  
 주야에 한가하여 월명동창 혼자 앉아  
 삼사경 깊은 ㉢ 받을 헛되이 보내면서  
 잠 못 들어 한하는데 그런 사람 있건마는  
 무상불청\* ㉣ 원망 소리 올 때마다 듣난고니  
 석반을 거두치고 황혼이 되듯마듯  
 낮에 못한 남은 일을 밤에 하려 마음먹고  
 언하당\* 황혼이라 섬섬옥수 바삐 들어  
 등잔 앞에 고개 숙여 실 한 바람 불어 내어  
 더문더문 질긋 ㉤ 바늘 두엇 뜸 뜨듯마듯  
 난데없는 이 내 잠이 소리 없이 달려드네  
 눈썹 속에 숨었는가 눈 알로 솟아온가  
 이 눈 저 눈 왕래하며 무삼 요술 피우려고  
 맑고 맑은 이 내 눈이 절로절로 희미하다  
 - 작자 미상, 「잠노래」 -

\* 검치두덕: 욕심 언덕.  
 \* 무상불청: 청하지 않은.  
 \* 언하당: 말을 마치자마자.

35.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감정을 이입하여 대상에 대한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시간의 흐름에 따라 대상의 변화 과정을 묘사하고 있다.
  - ③ 시선의 이동에 따른 화자의 정서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 ④ 의인화된 대상에게 말을 건네면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⑤ 영탄적 표현을 통해 자연물에서 받은 감흥을 표출하고 있다.
36.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화자의 내적 심리가 드러난 것이다.
  - ② ㉡: 부정적 상황에 처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
  - ③ ㉢: 과거와 대비되는 현재의 처지를 한탄하는 시간이다.
  - ④ ㉣: 대상에 대한 화자의 감정이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다.
  - ⑤ ㉤: 삶을 살아가며 느끼는 화자의 애환이 담겨 있다.

37. <보기>는 (가)와 (나)의 화자가 처한 상황을 정리한 것이다. A,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3점]

— < 보 기 > —

A	B
(가)의 화자 잠을 이루기 어려운 상황	(나)의 화자 잠을 이겨 내기 어려운 상황

- ① A는 B와 달리 가사 노동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② B는 A와 달리 화자의 의도와 다르게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A는 화자에게 소외감을, B는 화자에게 외로움을 유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④ A와 B는 모두 현실에서 반복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⑤ A와 B는 모두 외부의 도움으로 해결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8 ~ 4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일이 났소, 일이 났소. 아씨님 일이 났소. 사랑에서 일이 났소. 우리 덕 좌수님이 돌이 되었으니, 보는 바 처음이라. 가중의 이런 변이 세상에 또 있는가.”  
 마누라님 이 말 듣고 대경실색하여,  
 “애고애고, 이게 웬말이나. 너의 좌수님이 중을 보면 결박하고 악한 형벌 무수하고, 불도를 능멸하며 팔십 당년 늙은 모친 박대한 죄 없소냐. 지신(地神)이 발동하고 부처님이 도술하여 하늘이 주신 죄를 인력으로 어이 하리.”  
 춘단 어미 바삐 불러,  
 “네가 나가 진위(眞僞)를 알아 오라.”  
 춘단 어미 바삐 나와 문틈으로 내다보니, ‘내가 옹가다, 내가 옹가다’ 하며 서로 호령하니 언어동정 이목구비 두 좌수 똑같으니 춘단 어미 하는 말이,  
 “수지오지자웅(誰知烏之雌雄)\*이라, 게 뉘라 알아볼까.”  
 안으로 들어가며,  
 “마나님, 소비(小婢)는 알 수가 전혀 없소.”  
 마누라님 하는 말이,  
 “너의 덕 좌수님은 새로 좌수하여 도포를 급히 다루다가 불뚱이 떨어져서 안자락이 타서 구멍이 있으니 글로 보아 알아 오라.”  
 춘단 어미 또 나와 사랑문 열뜨리고,

“알 일이 있사오니 도포를 보사이다. 안자락에 불뚱 구멍이 있삽나이다.”

[A] 실용가 나왔으며 도포 자락 펼쳐 보니 분명할새 우리 댁 좌수님이라. 허용가 나왔으며,  
“에라, 이년, 요망한 년 가소롭다. 남산 봉화 들 제 인경치고, 사대문 열 제 순라꾼이 제격일다. 그만 표는 나도 있다.”  
안자락을 펼쳐 보니, 그도 또한 불구멍이라. 알 길이 전혀 없어 답답한 거동 보소.

“애고애고 마나님, 나가 보옵소서, 소비는 알 수 없소.”

마누라님 이 말 듣고 변색하여 하는 말이,

“우리 둘이 만날 적에 여필중부 본을 받아 서산에 지는 해를 긴 노로 잡아매고, 살아서 이별 말고 죽어도 한낱 죽자 천지로 맹세하고 일월로 증인(證人)터니, 의외에 변이 있으니 꿈이나 생시냐. 이 일이 웬일인가. 도덕 높은 공부자도 양호의 얼을 입었다가 도로 놓여 성인(聖人) 되었으니, 자고로 성인네도 일 시곤액 있거니와, 우리 집에 이런 변이 또 있을까. 내 행실 가지기를 송백같이 굳은 마음 두 낭군이 무삼일꼬.”

이같이 자탄할 제 며늘아기 여쭙오되,

“집안의 변을 보매 무슨 체모 있으리까.”

사랑문을 열고 들어가니 허용가 나왔으며,

“아가, 자세히 들어 보아라. 창원 마산포에서 너희 신행하여 올 제, 기마 10여 필에 온갖 기물 실어 두고, 나는 후배하여 따라올 제 상사마 한 필 뒤동걸어 실은 것이 모두 다 파삭파삭 절단나서, 돛동이 한복판이 떨어져서 쓰지 못하고 벽장에 넣었으니 그도 또한 헛말이냐. 너의 애비는 나로다.”

실용가 나왔으며,

“애고 저놈 보소. 내가 할 말 제가 하네. 애고애고 이 일을 어찌하라. 새아가, 내 얼굴 자세히 보아라. 네 시아버는 내가 아니냐.”

며느리 여쭙오되,

“우리 아버님은 두상에 금이 있고 금 가운데 백발이 있사오니 그 표를 보사이다.”

실용가 나왔으며 머리를 풀고 표를 보니, 이 대가리 탄탄하여 송곳으로 찢러도 물 한 점 아니 날레라. 허용가 나왔으며 요술 부려 흰 털을 빼어다가 저의 머리 붙이니, 실용가의 표는 쓸데없고 허용가의 표가 분명하다.

[B]

“며늘아가, 내 머리 자세히 보아라.”

하니, 며느리 나왔으며,

“예, 우리 시아버님이오.”

하니, 실용가 갖은 복통(腹痛)하여 머리를 와득와득 두드리며 하는 말이,

“애고애고, 허용가는 제 애비 삼고, 실용가는 구박하네. 기막혀 나 죽겠네. 내 마음 설운 원정 될더러 하여 볼까.”

[중략 부분 줄거리] 결국 실용가와 허용가는 동헌에 가서 사또의 판정을 받는다. 이 과정에서 가짜로 판정된 실용가는 집에서 쫓겨나 방황을 하다가 산속에서 도사를 만난다.

실용가 듣기를 다하여, 친방지방 도사 앞에 급히 나아가 합장 배례하며 공손히 하는 말이,

“이놈의 죄를 생각하면 천사(千死)라도 무석(無惜)이요 만사라도 무석이나, 명령하신 도덕하에 제발 살려 주오. 당상의 늙은

모친, 규중의 어린 처자 다시 보게 하옵소서. 원견지 하온 후는 돌아가도 여한이 없을까 하나이다. 제발 살려 주옵소서.”

만단으로 애걸하니 도사 하는 말이,

“천지간에 몸쓸 놈아, 인제도 팔십 당년 늙은 모친 냉돌방에 구박할까, 불도를 능멸할까, 너 같은 몸쓸 놈은 응당 죽일 것이로되, 정상이 가궁하고 너의 처자 불쌍한고로 방송(放送)하 나니, 돌아가서 개과천선하라.”

하며, 부적을 써 주며 가로되,

“이 부적을 몸에 붙이고 네 집에 돌아가면 괴이한 일이 있으리라.”

하고 인홀불견 간데없거늘, 실용이 질거 돌아와서 제집 문전 다다르니, 고루거각 높은 집에 청풍명월 맑은 경은 옛 놀던 풍경이라. 담장 안에 흥련화는 나를 보고 반기는 듯, 영산홍아 잘 있더냐, 자산홍아 무사하냐. 옛일을 생각하니 각급시이작비\*로 옛집을 다시 찾아오니 죽을 마음 전혀 없다.

“가소롭다 허용가야, 이제도 네가 옹가라 장담할까?”

하며 들어가니, 마누라 이 거동을 보고 심히 대경실색하여 하는 말이,

“애고애고 좌수님, 저놈 천살 맞았는지 또 와서 지랄하고 들어오니, 이 일을 어찌하리까.”

이러할 즈음에 방에 있던 옹가 간데없고 짙 한 묶음이 놓여 있고, 허용가의 자식들도 문득 허수아비 되니, 가중제인이 박장대소하더라.

좌수가 부인보고 하는 말이,

“마누라 그새 허수아비 자식을 저렇듯 무수히 낳았으니, 그놈과 한가지로 얼마나 좋아하였는가, 한상에 밥도 먹었는가?”

부인이 어처구니없어 묵묵부답하고 방 안에 돌아다니며 허용가의 자식 살펴보니, 이리 보아도 허수아비, 저리 보아도 허수아비 때가 분명하다. 부인이 일변은 반갑고 일변은 부끄러워하더라.

도사의 술법을 탄복하여, 옹좌수 모친께 효성하고, 불도를 공경하여 개과천선하니 그 어짙을 칭찬하더라.

\*수지오지자용: 누가 까마귀의 암컷과 수컷을 구별할 수 있으라는 뜻.

\*각급시이작비: 이제는 옳고 지난날은 그릇되었음을 깨달았다는 뜻.

- 작자 미상, 「옹고집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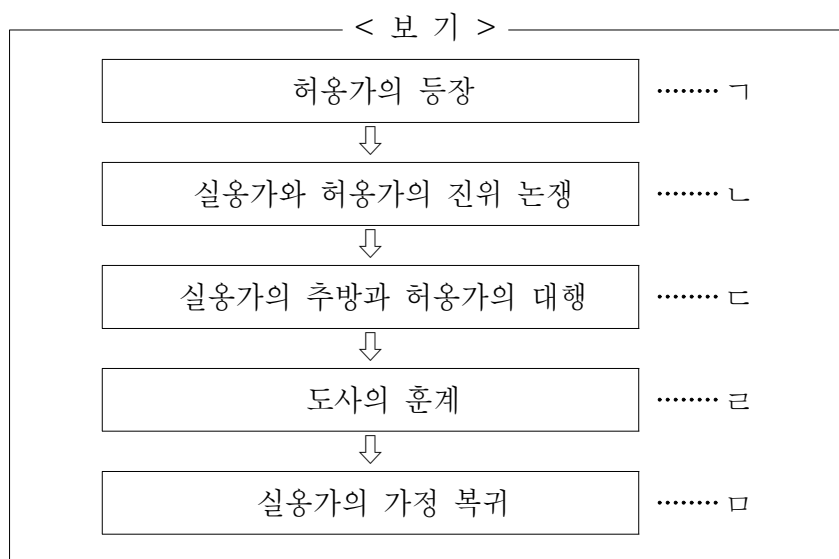
### 38.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인물 간의 대화를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된다.
- ② 인물의 과장된 행동을 통해 웃음을 유발한다.
- ③ 새로운 사건을 도입하면서 서술자를 교체한다.
- ④ 서술자의 목소리가 작중 상황에 직접 드러난다.
- ⑤ 비현실적인 상황을 설정하여 전기성이 드러난다.

39. [A]와 [B]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서는 의복이, [B]에서는 신체가 진위를 가리는 증거로 활용되고 있다.
- ② [A]에서는 [B]에서와 달리 진위를 확인하려는 인물이 직접 나서지 않고 대리인을 내세우고 있다.
- ③ [B]에서는 [A]에서와 달리 진위를 가린 결과 실용가가 불리해지고 있다.
- ④ [A]와 [B]에서 모두 실용가는 진위를 가리는 과정에서 자신의 답답한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⑤ [A]와 [B] 모두 진위를 가리는 과정에서 실용가가 허용가보다 먼저 나서고 있다.

40. <보기>는 윗글의 서사 구조를 정리한 것이다. 이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ㄱ에서 허용가가 등장한 이유는 실용가의 악행 때문이겠군.
- ② ㄴ에서 실용가는 도사가 변신한 허용가와 진위를 가리고 있군.
- ③ ㄷ에서 허용가는 주인 행세를 하며 실용가의 부인과 많은 자식을 낳았겠군.
- ④ ㄹ에서 도사는 실용가의 가족을 고려하여 실용가의 호소를 수용하고 있군.
- ⑤ ㄹ에서 실용가는 선한 인물로 거듭나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군.

[41 ~ 4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죽는 날까지 ㉠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 윤동주, 「서시」 -

(나)  
 새들도 떠나고  
 그대가 한 그루  
 헐벗은 나무로 흔들리고 있을 때  
 나도 헐벗은 한 그루 나무로 그대 곁에 서겠다  
 아무도 이 눈보라 멈출 수 없고  
 나 또한 그대가 될 수 없어  
 대신 알아줄 수 없는 지금  
 어찌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눈보라를 그대와 나누어 맞는 일뿐  
 그러나 그것마저 그대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  
 보라 그대로 하여  
 그대 쪽에서 불어오는 눈보라를 내가 견딘다  
 그리하여 언 땅 속에서  
 서로가 서로의 뿌리를 얽어주고 체온을 나누며  
 끝끝내 ㉡ 하늘을 우러러  
 새들을 기다리고 있을 때  
 보라 어느샌가  
 수많은 그대와 또 수많은 나를  
 사람들은 숲이라 부른다  
- 복효근, 「겨울 숲」 -

41. (가)와 (나)의 표현상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겉으로 드러난 화자가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 ② 공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계절감을 환기하고 있다.
  - ③ 어조의 급격한 변화를 통해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 ④ 반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 ⑤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을 통해 현실적 어려움을 강조하고 있다.

42. (가)와 (나)의 시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가)의 '잎새'는 화자가 과거를 회상하는 매개체라는 점에서 (나)의 '헐벗은 한 그루 나무'와 유사하군.
- ② (가)의 '바람'은 화자의 내적 고뇌와 연결된다는 점에서 (나)의 '눈보라'와 유사하군.
- ③ (가)의 '모든 죽어가는 것'은 화자가 애정을 보이는 대상이라는 점에서 (나)의 '그대'와 유사하군.
- ④ (가)의 '오늘 밤'은 화자가 처한 힘겨운 현실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나)의 '언 땅'과 유사하군.
- ⑤ (가)의 '별'은 화자가 지향하는 가치를 함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나)의 '숲'과 유사하군.

43. <보기>를 바탕으로 ㉠과 ㉡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하늘'은 일반적으로 인간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가치를 상징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을 우러러' 보는 행위를 통해 그들이 추구하는 삶의 태도를 엿볼 수 있다.

- ① ㉠에는 현실과 타협하고자 하는 의지가, ㉡에는 현실에 저항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다.
- ② ㉠에는 자연과 동화되고자 하는 의지가, ㉡에는 자연에서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다.
- ③ ㉠에는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고자 하는 의지가, ㉡에는 희망을 잃지 않고 인내하려는 의지가 담겨 있다.
- ④ ㉠에는 외부의 세계와 소통하고자 하는 의지가, ㉡에는 외부의 세계와 단절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다.
- ⑤ ㉠에는 무기력한 삶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에는 타인의 도움 없이 홀로 살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다.

[44 ~ 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다시 조명되면 세탁소 시작-오전이다. ㉠ 추레한 중년의 남자 이석운(이하 '이')이 간판과 세탁소를 번갈아 살피며 가게로 들어선다.

강, 클리닝용 세탁물을 가슴에 안고 나온다.

[이] 실례합니다.

[강] (세탁물을 내려놓으며) 어서 오십시오. ㉡ (관객에게) 그날 아침에 있었던 좋은 일입니다.

[이] (세탁소를 둘러보며) 혹시 여기가 옛날에 강씨 아저씨가 하시던 오아시스 세탁소가 맞나요?

[강] 예, 맞습니다.

[이] 그럼?

[강] 아, 예 저의 아버님 되십니다.

[이] (손을 잡으며) 아, 그래요?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강] (의아해 하며) 그런데 어떻게?

[이] (손을 놓으며) 제가 저 우물 골목 막다른 집 살던 이석운이올시다.

[강] (기억난다.) 아, 이석운이!

[이] (어정쩡하게) 그래-요, 이석운이.

[강] (역시 어정쩡하게) 예, 생각납니다.

[이] 좋은 생각이랄 게 뭐 있겠습니까? 그저 사고뭉치 후레자식 놈이지.

[강] 아이구 무슨 말씀을 애들 때야 다 그렇지. 철나면 그제 어른이지요.

[이] 이거 염치없습니다만 옛날에 맡긴 저의 어머니님 옷이 혹시 있을까 해서 왔습니다.

[강] 어머니님 옷이요?

[이] 제가 40년 전에 여기 아저씨께 맡겼습니다.

[강] 아이구, 40년 전이라.

[이] 제가 못된 짓을 하느라고 어머니님 옷까지 들고 나와 사거리 전당포로 들어가다가 여기 강씨 아저씨를 만났어요. 아저씨가 돈을 주시면서 나중에 갖고 찾아가라고 옷을 맡아 주셨거든요. 전당포에 들어가면 나중에 다시 찾기 힘들다고, (진땀을 닦으며) 없겠죠?

[강] 글썄 아버님이 두신 옷들이 있긴 한데 옷이 뭐죠?

[이] 쥐색 두루마기요, 없으면 봐주세요, 그냥 한 번 봐드립니다.

[강] (세탁대 밑에 넣어 둔 상자에서 낡은 노트를 꺼내어 본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일기인데 나중에 주인이 찾아올 거라고 두신 옷들이 있어요. (찾으며) 요즘엔 옷을 안 찾아가면 서면으로 통지도 하고 30일이 지나도 안 찾아가면 처분을 해도 업자 책임이 없는데 옛날엔 안 그랬으니까 아버님도 처분을 못하시고, (아 여겼다.) 40년 전 이석운이.....

[이] 있나요?

[강] (자랑스럽게 노트를 보여 주며) 여기!

[이] 1962년 9월 7일 이석운 두루마기, 그거 참. 아니 아버님께서 일일이 다 기록해 두셨나 봐요?

[강] 예, 워낙 꼼꼼한 양반이라 아버님 생전의 일들을 다 적어 놓으셨어요. 우리 세탁소 역사책이에요. 이것만 보구 있

으른 아버지 보는 것 같아요. (노트를 넣어 두며)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옷 사이로 사라진다.)

[이] 아, 예.

[강] ㉠(소리만) 저희야 가켓세를 내는 것도 아니고 해서 괜찮지만, 다른 세탁소 같으른 어렵도 없는, 정말 여기 있는데요. 1962년 9월 7일 이석운.

[이] 이석운이 맞습니까?

[강] (옷 틈에서 두루마기 한 벌을 가지고 나오며) 예, 이석운이.

[이] (모자 상봉 하는 양 감격에 겨워) 맞습니다. 우리 어무니 옷입니다. 한 벌밖에 없는 두루마기인데 내가 훔쳐 나왔거든요, (옷을 받아 안으며) 찬바람만 불면 청개구리처럼 아이고 우리 어무니 춥겠네 춥겠네. (눈물을 훔친다. 꼬리표를 보고) 제가 옷을 맡긴 건 6월인데 9월이라고 되어 있네요. (안주머니에 손을 넣으며) 이게 뭐죠? (한지에 퐁퐁 쌓인 물건을 꺼낸다.) 맡길 땐 아무것도 없었는데.....

[강] (들여다보며) 글썩요? 제가 두질 않아서.....

[이] ㉡(열어 보고 기가 막혀) 우리 어머니 반지네, 아이고 우리 어머니 금반지 맞네, 여기 닳은 거 하고, 찌그러진 거, 어머니 어머니!

[강] 아마 어머니가 아시구서는 다시 맡기신 모양인데요.

[이] (감격하여) 어머니! 우리 어무니가 다 알고 계셨어. 다 알고 계셨어. 어머니.

[강] 진정하시고 이쪽으로 좀 앉으시죠.

[이]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아, 성공하면 온다고 어머니님 임종도 하지 못한 불효자식을 용서하십시오. 어머니, 이 자식이 뭐가 그리워서 금반지 넣어 놓고 기다리셨어요. 어머니!

[강] (물을 따라 주며) 드시고 진정하십시오.

[이] (마시며) 제가요, 이 옷이 없으면 죽으려고 했습니다.

[강] 예?

[이] ㉢(눈물이 텅텅뚝 떨어진다.) 너무 살기가, 진짜 살기가 힘들어서요. (코를 푼다.) 근데요, 인젠 살아야겠습니다.

[강] 아이고. 예, 그러셔야죠.

[이] (좋아서) 허허허 전 없어진 줄 알았거든요. 기대도 안 했는데 아파트가 죄 생겨 가지고 큰길가에서는 이 세탁소가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없을 것이다 하고 왔는데 정말 고맙습니다. 지가 다음에 올 때까지 꼭 지켜야 합니다.

[강] 아이 뭐 힘닿는 대로 버텨야죠.

[이] 여기가 고향이라도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남은 게 없습니다. 지가 나중이라도 은혜를 갚게 꼭 좀 세탁소를 하십시오.

[강] 예, 예.

[이] 세탁비는?

[강] 세탁비 받으실 분도 돌아가셔서 이거, 그냥 가십시오.

[이] 제가 죽일 놈입니다. 전 어머니님 임종도 못했습니다. (한숨을 쉬며) 아, 이제 가겠습니다.

[강] 힘내시고 안녕히 가십시오.

- 김정숙, 「오아시스 세탁소 습격 사건」 -

44. ㉠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외양을 통해 인물의 처지를 드러낸다.
- ② ㉡: 관객에게 말하는 방식으로 전개될 사건의 성격을 암시한다.
- ③ ㉢: 소리만 들리는 상황을 통해 내적 갈등을 나타낸다.
- ④ ㉡: 상징적인 소재로 인해 인물의 감정이 고조된다.
- ⑤ ㉢: 세탁소가 인물이 위안을 얻고 있는 공간임을 보여 준다.

45. <보기>의 선생님이 한 질문에 적절하게 대답한 학생을 바르게 묶은 것은? [3점]

— < 보 기 > —

**선생님:** 40여 년 전 맡긴 옷을 다시 찾겠다는 설정은 현실적으로 일어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가는 극적 장치를 마련하여 현실에서 일어날 법한 상황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작품에서 작가가 사용한 극적 장치는 무엇일까요?

- **경현:** 세탁소에 두루마기를 맡긴 것은 6월인데 꼬리표에는 석운이 9월에 맡긴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요.
- **슬언:** 오아시스 세탁소가 변함없이 대를 이어 한 자리에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었던 점을 들 수 있어요.
- **준서:** 강씨 아버님이 세탁물에 관해서 노트에다가 빠짐없이 기록했고 강씨가 이를 간직해 두고 있었던 점이에요.
- **윤호:** 오아시스 세탁소 주변에 아파트가 마구 들어서게 되어 큰길에서는 세탁소가 잘 보이지 않게 된 일이에요.

- ① 경현, 슬언
- ② 경현, 윤호
- ③ 슬언, 윤호
- ④ 슬언, 준서
- ⑤ 준서, 윤호